

이준석·조국·용혜인 광주行...3지대 신당·광주 출마 촉각

이준석, 19일께 토크콘서트...보수 빅텐트? 찻잔 속 태풍?
 조국, 12월 4일 북콘서트...광주 출마설 vs “또 광주 소비”
 용혜인, 12월 2일 첫 의정보고...광주 출마? “모든 가능성”

신당 창당설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기에 ‘국감 스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야권심장부이자 뒷받침 광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제3지대 창당, 광주 출마설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른 오는 19일, 늦어도 이달 안으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일 부산 경성대에서 열린 ‘이준석&이언주 특목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대표는 12월 말을 신당 창당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김메이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물론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 세 번째 권력 조정공 공동위원장 등 제3지대 추진세력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정치포럼 ‘당신과 함께’ 정태근 공동대표까지 포함된 가치 ‘금융연석회의’와도 직접 만나 단순한 외연확장이 아닌, 당내 개혁과 해계모니를 둘러싼 교통정리가 안될 경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 행사에서는 최근 ‘제3지대 혁신신당’, ‘구단주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용섭 전 광주 시장이 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당내 분열과 원심력으로 3지대 신당이 탄력을 받을 경우 동상이몽일지라도 빅텐트가 쳐질 수 있다는 관측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 전 대표 스스로도 최근 신당 창당과 관련해 ‘보수계열 신당’을 전제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안철수 신당이 호남 28석 중 23석을 싹쓸이한 이른바 ‘녹색바람’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보수신당’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연내 당내 구심점으로 실권을 쥘 경우 신당은 백지화되고 신당 바람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어 변수는 여전한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12월4일 광주를 찾는다.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非) 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정치 재개를 밝힌 조

전 장관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독자 초대 방식이었으나, 광주에선 처음으로 언론인 초청행사로 진행된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조국비례제’, 보수 진보정당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지지자들이 호남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가운데 북콘서트 일정까지 잡으면서 신당 창당설과 광주 출마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와의 3자 신당설과 조국 중심 신당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대, 즉 ‘조·추·송 등판론’도 제기되고 있어 광주 방문을 계기로 어떤 정치적 그림이 그려질 지 관심이 다.

반면 조전 장관이 호남에 이렇다할 연고가 없는 데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풀썩은 여론도 적지 않고 “정치권이 광주를 도구화하고, 정치적으로 소비하려 한다”는 불편한 심기도 만만찮아 광주 민심을 어떻게 보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월2일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다. 전국 17곳에서 열릴 릴레이 의정보고회 첫 행사지로 광주를 택해 광주 출마설과 맞물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용 대표는 광주와는 이렇다할 연고가 없고, 남편의 연고가 전남 무안으로 을 추서 연후에 광주 동·북구를 중심으로 용 대표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대거 내걸리면서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용혜인 대표.

용 대표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총선 진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수도권인데 광주든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놓고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야권 연대설, 민주당과의 공조 등 크고 작은 변수가 많아 용 대표의 정치적 거취는 12월 하순께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는 “준연동형이나 병립형이나 등 핵심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당내 주도권, 파괴력, 유권자 방어 심리 등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 신당, 지지층 모두 안갯 속이어서 현재로서는 상상만 커지는 것 같다”며 “12월 중후반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광주시, 똑똑한 횡단보도 15곳에 만든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광주시가 인공지능(AI)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내 15곳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광산구 은성약국 부근·교직원공회 앞·대남대로 342·서문대로 659·하남대로 282·문산회관 부근·만호초등학교·매곡프라자·오정초교 앞·한미쇼핑사거리·돌고개역·서부소방서 부근·금영푸르미아파트·효동초등학교·목련초등학교 인근이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첨단센서 기술로 보행자와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는 음성 경고를 보낸다. 운전자에게는 정지선 위반 정보 등을 전광판에 표시해 알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경우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미래형시스템이다.

시는 또 스마트횡단보도 운영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 서버·운영단말기 등을 도입하는 한편 스마트횡단보도 응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총 사업비는 139억6500만 원이다. 사업비는 국비 40%·시비 60%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임형택기자

‘공정 올스톱’ 위니아 협력업체...“버틸수가 없다”

위니아 법정관리 사태에 협력사 안절부절

“죽을 맛이죠.” 대우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사태 50일째를 맞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위니아 협력업체.

위니아의 브랜드 ‘딤체’ 김치냉장고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이곳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관련 공정이 모두 중단됐다.

김장철을 맞아 주말 없는 2교대로 생산력을 부쩍 올려야 했을 공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김치냉장고의 냉장·냉동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냉매관.

2차 협력업체로부터 제작된 일직선 상태의 냉매관을 받아 이를 가공하는 작업이 공장의

주요 업무다. 두달 여 기간 가까이 공정을 멈춘 이곳 공장 2층 생산 라인에는 약 1만여 개에 달하는 가공된 냉매관 재고가 쌓여있었다.

먼저 쌓인 냉매관 한 조마다 부차된 부품식별표 기준 가장 마지막 생산일은 지난 9월 25일이다.

냉매관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비정규직 포함 직원 9명은 위니아 법정관리 신청 사태 이후 모두 강제 휴직 상태다.

지난해 기록된 연매출 60억 여 원 대비 올해는 11월 현재 30억 여 원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법정관리 사태 직전까지 위니아로 부품을 납품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10억 5000만원에 달하고 생산 라

인에 쌓인 재고에 대한 금액도 1억 2100만원 상당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위니아그룹 전자 계열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메뉴팩처링, 위니아, 대우플러스, 위니아에이드 등 5개 계열사가 지난 9월 중순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로 인한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위니아그룹 내 가진 3사(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메뉴팩처링)의 체불임금은 553억원 규모다. 김희면기자

화·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군산림조합

“산림조합”을 알면 “살림”이 플러스 됩니다.

산림조합에서 만날 수 있는 혜택!!

★ 대출안내

대출상품	금리	지원대상 및 조건
담보대출	5.3% ~	▶ 토지, 임야, 상가, 아파트 등 (감정가의 최고 80%) ▶ 농신보 대출(농신보 보증서 발급가능자) ▶ 경락잔금대출(낙찰가의 최고 80%)

※ 신규대출 및 타기관 대한대출 환영-!!
 ※ 신용도 및 담보물에 따라 금리는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예금안내

SJ숲으로 여행적금 출시~!! 최대 5.0%

적금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비고
12개월	4.50%	0.50%	반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조건
 1. 조합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5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3%
 2. 추천친구 인증번호가 입력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증번호 제공계좌에 우대금리 제공 - 0.2%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1 (TEL : 061-383-9995 FAX : 061-383-9994)